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음 6월 28일) 제23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는 이원택 도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유치단'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제4회 2019 유러피안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유치단 일행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 아태마스터스 본격 유치 매진

이원택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유치단 결성
 이태리 토리노 개최 '유러피안마스터스' 참가
 조직위 등과 면담과 함께 유치홍보부스 운영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본격적인 해외유치활동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원택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유치단' (이하 유치단)이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제4회 2019 유러피안마스터스대회'에 참가했다.
 이달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대회 유치의 정부승인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해외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4년마다 열리는 대륙별 대회로 총 25개 종목에 70개국(1만3000여

명)의 전직 선수, 동호회 회원 등 생 활체육인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전북도가 8월 유치계획서를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에 제출하면 국내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제기구 IMGA(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이사회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유치단은 참가기간 중 국제대회의 개최지 결정권이 있는 IMGA 회장단 면담과 유러피안대회조직위, 2021년 일본 간사이조직위와의 연이은 면담과 전북도 유치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도는 IMGA 회장단 면담에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국제 행사 심사를 최종 통과해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공식 유치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 보증과 충분한 체육시설, 대규모 체육행사 운영경험 등을 내세워 전북도 유치 우위를 설득했다.
 IMGA CEO 옌스 홀름(Jens Holm)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신청은 8월말까지이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만, 태국, 몽골, 뉴질랜드처럼 대한민국 전라북도도 후보도시 중 한 곳이지만 2018년에 전북도를 방문, 체육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시찰한 바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대로 대회를 개최해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화답했다.
 이원택 유치단장은 유러피안마스터스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토리노 시장, 대회조직위원장과 '2021 월드컵마스터스' 개최예정인 일본 간사이 조직위

원회 임원들과 '모두를 위한 생활 스포츠'라는 마스터스대회 정신을 공유하고, 2022년 전북도에서 '제2회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단장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편익(BCR) 비율이 3.520으로 매우 경제성 있는 대회로 관람반은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종선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단은 홍보부스와 경기장에서 대회에 참가(107개국, 1만여명)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선수참여 현황, 경기장 시설, 경기운영, 스포츠와 관광이 접목되는 조직위원회 부가이벤트 프로그램을 파악하는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김진성 기자

'찌는 듯한 더위' 도내 13개 시군 폭염특보

낮 최고기온 정읍 태인 34.4도... 당분간 33도 넘는 듯

전북 장수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읍 태인이 34.4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2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정읍 태인 34.4도, 무

주 33.5도, 전주 33.2도, 순창 33도, 부안 32.8도, 김제 32.5도, 군산 32.4도, 정읍·임실 32.3도, 고창 31.8도, 장수 30.4도, 진안 30.5도 등을 기록했다.
 앞서 기상지청은 이날 오전 익산·

정읍·전주 등 3곳에 폭염경보를, 고창·부안·군산·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 등 10곳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경보와 주의보는 각각 낮 최고기온이 35도·33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강석훈 기자

기상지청은 당분간 전북에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일부 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전북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평년 29~33도)로 예상된다. /강석훈 기자

社告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2019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일시: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9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오는 8월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지방자치TV
-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소리 프론티어' 본선 참가팀 확정

가악프로젝트 · 코리아안집시상자루 · 헤이스트링 등 3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소리 프론티어 실연 예선을 진행하고 본선 참가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영광의 3개 팀은 '가악프로젝트', '코리아안집시상자루', '헤이스트링'이다.
 올해 '소리 프론티어'는 1차 서류 및 음원 심사를 통해 6개 팀이 예선 무대에 올랐으며, 한 팀당 10여 분 동안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번 심사는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여러 분야 예술가들의 다양한 음악적 측면을 수렴하기 위

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에 참여한 김현준 음악 비평가의 "소리프론티어의 가장 큰 가치이자 지향은 참신한 시각과 태도의 젊은 음악인을 발굴하는데 있다"라며 "근래 들어 눈에 띄는 팀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무대였다"고 평했다.
 3개 팀은 오는 10월 5일 본선 무대에 올라 최종 경연을 치르게 된다.
 순위에 따라 KBS리상 상금 1000만원, 소리축제상 500만원, 프론티어상 3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소리 프론티어는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송효철 기자

현대옥이야기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령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추억의 줄라맨, 성년이 되다 ③]



기름진 음식에 물리고 음주를 하는 줄라맨!
 담백하고 개운한 국물의 콩나물국밥에 빠지다.

콩나물국밥의 맛
 "어른이 되어가는 맛"

Copyright © 2000. (주)유니트픽처스 all rights reserved.
 현대옥, 캐릭터 줄라맨 라이선싱

- 현대옥 매뉴북 중 -

콩나물국밥의 맛

대미무미(大味無味) : 무미한 듯 하면서도 진정으로 큰 맛

현대옥에서는
 각기 제맛을 가진
 두 종류의 콩나물국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 전주남부시장식[토령응용식] * 전주끓이는식[직화식]

